

해석의 과잉과 실증의 빈곤을 넘어서려는 시도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박정희 시대』

정창현

지난 1995년 9월 9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역사적 인물' 과 만나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한국에는 '네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나단 Robert R. Nathan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가 주도해 1953년 3월 내놓은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서 수립된 첫 종합 경제개발계획으로 평가된다. 그가 1946년에 창립한 나단 어소시에이트 Nathan Associates Inc.는 박정희 정부가 제2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자문단으로 활동했다.

그는 대화 내내 박정희를 'President Park' 이 아닌 'General Park' 이라고 호칭하면서 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자신과 회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이 민주화된 선진 국가보다 더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동안 나단 박사는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 일방적인 찬사로, 자신들이 경제자문을 수행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자화자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의 시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해외학자들이 박정희 시대를 평가

하는 주류적인 관점은 동아시아 성장론에 입각한 '개발국가론'의 시각에서 경제발전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박정희 모델이 고도성장 모델이며 분배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 한국의 학계에도 상당부분 수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네이산' 경제자문단이 2년간의 경제자문을 바탕으로 낸 1966년의 「네이산 보고서」에는 최종 확정된 한국의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단 박사는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보고서는 당시 한국의 경제기획원이 '산업구조 현대화'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집념 때문에 총체적인 균형개발을 소홀히 다룬 점을 지적했다. '균형발전론'을 권고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발전론'을 추진한 박정희의 노선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것일까?

사실 최근 몇 년간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 만큼 논란이 된 주제는 없는 것 같다. 1980년대 한국현대사의 연구 시기 자체가 해방직후 분단과 전쟁에 집중됐다가 '이승만 평가 논쟁'이 활발해지더니 급기야 '박정희 시대'에 대한 본격 연구로 관심축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최근 출간된 『박정희 시대 연구』(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와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이병천 엮음, 창비)는 현재 사회과학계의 이러한 박정희 시대 연구 경향과 수준을 보여 주는 팔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박정희 시대를 보는 시각은 한편에서는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과거의 빈곤과 후진성을 극복하고 오늘의 풍요로운 한국을 있게 만든 황금기로, 다른 한편에서는 파쇼적 통치와 민주주의의 압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모순과 병폐가 싹튼 암흑기로 분명하게 대립됐다.

이 두 대립을 일정하게 해소하면서 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개발독재론이다. 사실 개발독재론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면과 박정희 시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론

화하기 위한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과 '독재',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개발독재론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는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박정희 시대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이른바 '동아시아 기적'의 시각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각 간의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의 양면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을 탐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책은 총론에 이어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1~6장)에서는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의 성공 요인과 개발체제의 특징을 해명하면서 산업화 성공이 신기루가 아니라 뚜렷한 정책적·제도적 바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산업화의 파행성과 불균형성에 주목한다. 제2부(7~11장)는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개발독재의 야만과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민주화시대에도 유령처럼 수시로 출몰하는 '박정희 신드롬'과 '박정희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을 엮은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학)는 박정희 시대의 개발과 독재, 경제 기적과 정치 억압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의 기본문제에 천착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경제적 성취를 애써 외면하는 '근본주의적 시각'과 냉전적 국가주의와 성장제일주의의 위험성을 망각하는 '무반성적 승리주의'를 비판한다. 특히 비판의 무게중심은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박정희 이상화 담론이야말로 탈냉전 민주화시대 박정희 바로보기의 최대 장애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장, 즉 '민주화와 산업화의 관계'라는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총론인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을 집필한 이병천 교수는 개발과 독재가 공생하면서 발전하는 '반동적 근대화' 체제로서 개발독재론의 시각이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박정희 체제를 근현대 개발독재 역사 속의 하나의 특수

형태로 파악하면, 경제성장의 기적과 위협의 양면성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권력 주도로 산업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통제하는, ‘국가주의적 근대화 수동혁명체제’가 곧 개발독재 체제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박정희 시대를 과연 ‘개발독재론’의 틀로 이론화해 설명하는 시도가 정당한 방법론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개발독재론의 한국적 적용이 갖는 적실성 여부를 떠나 “개발독재론은 개발,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삼각관계라는 발전론 및 이행론의 역사와 함께 오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이 교수의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박정희 시대에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개발독재’가 “한국의 극단적 근대화 시대를 집약하는 핵심어”이며 “박정희 시대 18년을 꿰뚫는 키워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의 본질적 성격을 ‘개발독재시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민주’의 문제를 배제해 버리는 한계를 보이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는 산업화가 요구하는 정치체제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무심히 읽히지 않는다.

이 책 11장 “민주화 시대의 박정희”에서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는 박정희 담론을 권력 담론과 비판 담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박정희 이상화 담론은 현실역사와는 거리가 먼 신화적 박정희를 가공해 낸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한국의 취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성을 띠고, 반민주적·반시민사회적·반인륜적 ‘패륜’을 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글은 이상화 담론과 대척에 선 비판 담론 성격의 ‘우리 안의 파시즘론’이 박정희 체제의 대중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기반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 안의 파시즘론’이 박정희 시대의 독재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하듯이 ‘개발독재론’ 역시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박정희 시대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담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없는지 되돌아볼 계기를 제공하는 지적이다. ‘개발독재론’이 민주화와

경제발전, 민주화와 개발독재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때 '박정희 신드롬', '개발독재 불가피론' (산업화 초기인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비판·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책의 필자들이 모두 개발독재론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책은 한국사회과학계의 중견·소장 연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박정희 시대를 분석하며 현재의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책을 읽다 보면 요즘 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라크전 파병문제를 옳게 보기 위해서는 박정희 시대의 베트남전 파병문제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준다.(8장, 한홍구,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또한 서울 강남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부동산은 2배, 금융자산은 최대 4배 가량 가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또한 박정희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6장, 이정우, 「개발독재와 빈부격차」)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박정희 시대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강좌' 성격을 띤 대중 학술서에 가까운 셈이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이론화 작업과 함께 박정희 시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평가하면서 통계 문제를 지적한 1966년 7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2면)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통계의 신빙성 문제는 계획의 타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인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현재의 통계 사정은 두 가지 요인을 다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인상을 질게 해 주고 있다. 만일 그러한 신빙성 없는 통계를 근거로 한 계획안이라면 아무리 형식상의 완벽성을 고시한다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박정희 시대 연구를 하면서 당시에 발표된 통계수치의 신뢰성 문제가 이 시대 경제사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단순히 통계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수많은 자료와 증언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확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박정희 시대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1~3장에서 박정희 시대의 기원인 5·16 군사쿠데타의 발발 배경과 원인, 미국의 정치개입, 박정희와 미국의 관계 등을 미시적으로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 박정희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형성 문제, 박정희 시대 영화를 통해 구현된 여성이미지 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마다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홍석률 교수(성신여대, 한국사)는 “4·19직후 민주주의의 실험이 실패해 5·16쿠데타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실험 내지 성장과정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이를 저지했다”고 설명한다. 5·16쿠데타는 “당시 정치·사회적 불안 등의 유인 요인보다는 군 내부의 승진 정체 현상, 쿠데타 주체세력의 권력욕 등 촉발 요인에 의해 더 추동됐다”는 것이다.

박태균 교수(서울대, 한국사)는 “군사정부 시기 미국의 개입정책은 미국의 후진국 정책에서 나타나는 개입의 양상을 보여 주는 주목되는 사례”라는 전체 아래 “큰 틀에서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지만, 후진국 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타협과 정책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 준다.

반면 이완범 교수(정신문화연구원, 정치학)는 5·16쿠데타 전후의 미국 문서를 분석해, 미국이 결과적으로 군부 쿠데타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아 ‘불개입을 가장한 고도의 정치적 개입작전’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저자들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들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을 주요한 방법으로 삼는 역사적 접근법을 사용했다. 문제들에 관한 사

실 확인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미간행 내부분서와 공간된 외교문서, 증언 등에 의존한 '역사적 고증' 방법과 연대기적 서술, 서사적 방법이 가장 설득력 있고 유용한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들은 역사적 주체들의 주관적 행동과 객관화된 사실 뒤에 실재하면서도 숨겨진 의미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같은 미국 문서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 개입과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낸 것은 이 같은 작업이 역설적으로 현대사 연구에서 쉽지 않음을 잘 보여 준다. 진실은 객관적 사료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실을 규명하고 입증하는 작업은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출간된 2권의 '박정희 시대' 연구서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박정희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실증적 검증' 과 함께,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현대사의 특성을 아우르는 이론화 작업이 병행될 때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 시대가 현대사 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작업의 시급성이 될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정형현 jchmin@joongang.co.kr |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한신대, 상명대 강사 역임. 저서로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4·19와 남북관계』(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 「5·16군사 쿠데타의 배경과 성격」, 「1945년~1960년 민중운동에 대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